

## 폐광지역 노인의 삶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이재철<sup>1</sup>, 노효련<sup>2\*</sup>

<sup>1</sup>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up>2</sup>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Factors of the Quality of Lif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in Abandoned Mine Regions

Jae-Cheol Lee<sup>1</sup>, Hyo-Lyun Roh<sup>2\*</sup>

<sup>1</sup>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폐광지역의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의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폐광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167명이었다. 폐광지역의 노인들이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는 중간 정도였고, 탄광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에 현재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종교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주거환경과 쾌적한 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폐광지역의 노인들에게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주거지의 정비와 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동화된 지역을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living in abandoned mine regions as well as the life quality factors that affected thei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 structured survey was used to look at thei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were 167 elderly people aged 60 or older residing in abandoned mine regions in Gangwon-do. Their quality of life and degree of life satisfaction was moderate and when they had worked for a mine for a long time, their current degree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 In addition, religion affected thei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leasant environment were highly influential in thei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o improve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in abandoned mine regions, it is essential to recover their hollow areas and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by organizing their residential areas and enhancing their environment.

**Key Words** : Abandoned Mine Region, Elderly People,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 1. 서론

강원남부권 탄광지역은 석탄산업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나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광산이 폐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여 지역 전체가 공동화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자가 떠난 폐광지역은 폐허가 된 사택촌, 석탄장, 탄

광사무실 등이 흉물로 남게 되었고[1] 탄광노동자가 아닌 ‘폐광 실직자’로 전락한 그들은 생계에 대한 불안과 더 불어 급격한 지역사회의 붕괴를 겪게 되었다[2,3].

폐광지역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탄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와 함께 2003년 강원도 내의 탄광지역인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을 대상으로 특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4]. 이러한 특별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 10

\*Corresponding Author : Hyo-Lyun Roh(Kangwon National Univ.)

Tel: +82-10-2456-3468 email: withtry@kangwon.ac.kr

Received June 9, 2014

Revised (1st July 17, 2014, 2nd July 23, 2014)

Accepted September 11, 2014

여년이 넘었으나 폐광지역의 활성화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폐광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가정 그리고 무의탁 노인세대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5]. 또한 산업의 역군이었던 탄광 근로자들은 직업을 잃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사회 붕괴를 지켜보면서 어느덧 노인세대가 되었다. 젊은 날의 산업역군에서 벗어나 육체적인 노화와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몸소 느끼면서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 노년기의 삶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뿐 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역할, 소득, 가족, 친구, 건강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노인들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6]. 특히, 직업을 잃고 자신의 터전이었던 지역사회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노인세대 된 탄광 근로자들이 가지는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문제 중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7]. 생활 만족이란,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8]. 최근에는 복잡해진 사회 환경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노인과 노인 주위의 인접한 환경 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6-8].

이러한 측면에서 삶의 터전인 탄광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노인 세대가 된 폐광지역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광지역의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각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의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의 참가자는 강원도 삼척시 지역 중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이었다. 자료수집은 비확률 표집의 무작위 편의표집법에 따라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의 취지 및 동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배포하여 본인이 직접 무기명으로 기입하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과 집에 계시는 노인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자해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구술을 통해 설문지 내용을 알려주었다. 총 194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일관된 중간값을 보이거나 무응답이 많은 27부를 제외한 16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9문항(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 소득, 종교, 탄광 근무경험, 탄광 사직이유, 거주기간), 생활만족도 20문항, 삶의 질에 대한 문항은 총 12개 분야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대상자의 수는 G power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표본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80%, 양측검정, 유의수준 .01, 효과크기 0.15을 기준으로 134명이 필요했다[9].

###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만족도에 대한 검사는 최성재(1986)[10]에 의해 개발된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생활만족도 척도는 하위요소인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로 구성되며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LS)는 이들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한 전체 문항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0.83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에 대한 검사는 임근식(2012)[11]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지역경제 여건, 사회복지 여건, 안전환경, 주거환경, 교통환경, 정보환경, 행정 여건, 기초생활 여건, 쾌적한 환경, 문화체육생활 여건, 교육환경, 사회적 여건, 지역에 대한 애

착심의 13개 하부 요인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근식(2012)[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8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매우 높다' ~ 5='매우 낮다'),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composite index)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 2.3 신뢰와 타당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측정도구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으로, 회전방식은 직각회전인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는 1, 요인적재량은 .4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변수들은 예상된 구성개념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major variables

Variable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 α
LS(total)	20		.835
Past	6	.668~.744	.808
Current	8	.753~.866	.716
Future	6	.611~.912	.719
QOL (total)	44		.948
Local economy	2	.739~.865	.677
Social welfare	3	.778~.871	.738
Environmental safety	3	.805~.867	.788
Residential environment	2	.926	.829
Traffic environment	4	.647~.855	.780
Information environment	3	.831~.867	.799
Administrative arrangements	6	.687~.829	.852
Living conditions	2	.848	.603
Comfortable environment	6	.673~.830	.857
Culture and sports	4	.773~.874	.852
Education environment	4	.759~.842	.827
Social conditions	3	.770~.839	.708
Area Love heart	2	.894	.747

LS: Life Satisfaction, QOL: quality of life

생활만족도의 요인적재량이 요인에 따라 최소 .611에서 최대 .866까지 나타났으며, 삶의 질 역시 .647~.926으로 나타났다. 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 구형검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적 합치도는 생활만족도 전체가 .83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과거만족도는 .808, 현재만족도는 .716, 미래만족도는 .719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질은 전체가 .948, 하위요인별로는 지역경제는 .677, 사회복지 여건은 .738, 안전환경은 .788, 주거환경 .829, 교통환경 .780, 정보환경 .799, 행정 여건은 .852, 기초생활 여건은 .603, 쾌적한 환경 .857, 문화체육 .852, 교육환경 .827, 사회적 여건 .708, 지역애착심 .747로 나타났다.

###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는 크로박 알파(Cronbach's α)를 통해 살펴보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변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회귀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여부는 왜도 및 첨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의 차이는 t-검정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삶의 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성별에서는 여성이 62.3%, 남성이 37.7%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다는 62.9%, 있다가 37.1%로 직업이 없는 노인이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이하 51.5%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대한 문항에서는 종교 없음 37.7%, 기독교 32.9%, 불교 22.8% 순이었다.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1년 이

상이 55.7%로 가장 많았고 21~30년, 11~20년 순으로 대부분이 폐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탄광경력 없는 경우가 71.8%이었는데 조사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62.3% 가량이어서 탄광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37.7%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성의 70% 가량이 탄광에서 일하였거나 재직 중이라고 하겠다. 현재 탄광에 재직 중인 경우는 4.2%에 해당하였고 탄광경력자 중 11년 이상인 경우가 24.6%로 나타났다. 탄광을 퇴직한 이유는 정년퇴직이 13.25%로 가장 높았고, 명예퇴직, 기타, 사고나 질병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67)

Variable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63	37.7
	Female	104	62.3
Education	Elementary or less	86	51.5
	Middle school	33	19.8
	High school	45	26.9
Job	Collage	3	1.8
	Have	62	37.1
Religion	Don't have	105	62.9
	Buddhism	38	22.8
	Christian	55	32.9
	Catholic	9	5.4
Income (million yen)	Other	2	1.2
	None	63	37.7
	≥100	97	58.1
	100-200	28	16.8
	200-300	26	15.6
Residential period (year)	300≤	12	7.2
	≥10	14	8.4
	11~20	20	12.0
	21~30	40	24.0
Miner's career (year)	31≤	93	55.7
	≥ 1-5	2	1.2
	≥ 6-11	1	.6
	11 ≤	41	24.6
Coal tenure	No	120	71.8
	Incumbent	7	4.2
Reason for retirement	Not served	160	95.8
	Retirement	22	13.2
	Accidents or diseases	4	2.4
	Emeritus	8	4.8
Other Job to have	Other Job to have	3	1.8
	Other	7	4.2

### 3.2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수준

폐광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해 보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생활만족도는 평균평점 2.63±.03점으로 나타나서 중간 정도의 생활 만족도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현재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2.80±.45점, 과거만족도가 평균평점 2.70±.40점, 미래만족도가 평균평점 2.40±.443점 순으로 나타나서, 미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ajor variable

Variable	M±SD
LS(total)	2.63±.003
Past	2.70±.040
Current	2.80±.045
Future	2.40±.044
QOL (total)	3.06±0.54
Local economy	3.53±0.80
Social welfare	3.05±0.75
Environmental safety	2.89±0.68
Residential environment	2.88±0.82
Traffic environment	3.55±0.78
Information environment	3.25±0.76
Administrative arrangements	2.87±0.63
Living conditions	3.09±0.92
Comfortable environment	2.63±0.76
Culture and sports	3.52±0.90
Education environment	2.94±0.72
Social conditions	2.63±0.73
Area Love heart	2.79±0.85

LS: Life satisfaction, QOL: Quality of life

폐광지역 노인의 삶의 질 정도는 평균평점 3.06±.54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교통환경 여건(3.55±0.78), 지역경제(3.53±0.80), 문화체육(3.52±0.90)의 순서를 나타내어서 교통환경 여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여건(2.63±0.73), 쾌적한 환경(2.63±0.76)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 3.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의

[Table 4] LSD and QOL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Past life satisfaction		Current life satisfaction		Future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	2.62±.37	-1.915	2.75±.44	-1.06	2.38±.42	-0.368	3.15±.56	1.701
	Female	2.75±.41		2.83±.45		2.41±.46		3.00±.52	
Religion	Buddhism	2.59±.31	3.327*	2.82±.46	2.432*	2.23±.47	2.461*	3.06±.48	0.065
	Christian	2.75±.45		2.90±.54		2.45±.42		3.09±.54	
	Catholic	2.57±.49		2.57±.22		2.26±.28		3.03±.32	
	Other religion	2.00±.71		2.25±.35		2.17±.00		3.04±.68	
	None	2.77±.35		2.74±.35		2.48±.45		3.04±.60	
Residential period (year)	≥10	2.55±.32	1.925	2.82±.48	0.37	2.42±.39	0.788	3.25±.48	3.043*
	11~20	2.82±.28		2.84±.42		2.37±.44		2.95±.23	
	21~30	2.77±.42		2.84±.40		2.49±.46		3.23±.51	
	31≤	2.67±.42		2.76±.47		2.36±.44		2.97±.58	
Job	Have	2.74±.39	1.056	2.85±.43	1.147	2.55±.42	3.638***	3.19±.49	-2.467
	Don't have	2.68±.40		2.77±.46		2.31±.43		2.98±.55	
Income (million yen)	≥100	2.66±.43	0.802	2.68±.39	3.209***	2.27 ±.43	4.751***	2.95±.54	2.548*
	100~200	2.70±.35		2.87±.47		2.405 ±.32		3.05±.48	
	200~300	2.71±.32		3.01±.55		2.57 ±.50		3.22±.45	
	300≤	2.83±.33		2.98±.31		2.72 ±.30		3.42±.70	
Miner's career (year)	≥ 1-5	2.25±.12	0.661	2.31±.26	2.842*	2.25±.12	0.765	2.53±.116	1.688
	≥ 6-11	2.67±.00		2.13±.		1.83±.		3.42±.00	
	11 ≤	2.72±.43		2.76±.46		2.35±.45		3.13±.67	
	No	2.70±.39		2.82±.43		2.42±.44		3.05±.47	

\*p<.05,\*\*p<.01, \*\*\*p<.001

차이를 성별, 종교, 거주기간, 직업유무, 수입, 탄광경력의 여섯 가지 특성변인에서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생활만족도는 종교에서 과거, 현재, 미래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생활만족도와 미래생활만족도는 종교없음이, 현재생활만족도는 기독교가 가장 높았다. 직업유무는 미래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수입정도에 따라서는 현재생활만족도와 미래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탄광경력에서는 현재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경우가 현재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탄광근무경력자들 중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 현재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질에서는 거주기간과 수입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11~20년 사이인 경우와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삶의 질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3.4 삶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이 폐광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의 13가지 구성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이 폐광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만족도 변인에서는 쾌적한 환경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116, p<.001$ ) 전체적인 모형설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R^2=.049$ ).

현재만족도에서는 기초생활여건( $\beta=.329, p<.001$ ), 주거환경( $\beta=-.258, p<.001$ )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24$ ).

미래만족도는 쾌적한 환경( $\beta=.191, p<.05$ ), 주거환경( $\beta=-.298, p<.001$ ), 교육환경( $\beta=.184, p<.05$ )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12$ ).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Past Life Satisfaction			Current Life Satisfaction			Future Life Satisfaction		
		$\beta$	t	VIF	$\beta$	t	VIF	$\beta$	t	VIF
(Costant)			27.556***			18.870***			13.464***	
Quality of life	Comfortable environment	-.116	-2.912**	1.000			.191	2.370*	1.188	
	Living conditions				.329	4.300***	1.098			
	Residential environment				-.258	-3.372***	1.098	-.298	-3.716***	1.178
	Education environment							.184	2.267*	1.210
$R^2$ (Adj. $R^2$ )		.049(.043)			.124(.114)			.112(.096)		
F		8.482*			11.631***			6.854***		

\*p<.05, \*\*p<.01, \*\*\*p<.001

#### 4. 고찰

본 연구는 폐광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의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폐광지역 노인들은 중간 정도의 생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종교로 나타났는데, 과거생활만족도와 미래생활만족도는 종교없음이, 현재생활만족도는 기독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진행된 폐광지역은 교회, 절,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이 인구나 지역 크기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이는 탄광에서 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폐광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은 종교시설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중 지역의 교회에서는 노인들에게 식사, 레크리에이션, 강연 등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노인들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가 없는 경우는 가족들 중 사고나 위협에 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들의 과거와 미래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과거생활만족도는 종교 활동이, 현재생활만족도는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원망이 미래생활만족도에는 연령, 교육수준, 자녀와 결속도, 여가활동이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농촌지역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과 주관적 건강인식이, 어촌지역 노인에게는 수급권자 여부와 주관적 건강인식이어서[13] 본 연구에서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분만 이들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경우와 탄광근무경력자

들 중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 현재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탄광의 역할과 동시에 폐광이 진행되는 동안 탄광근로자들의 생활만족도의 하락과 피해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폐광지역 노인의 삶의 질 정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환경 여건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여건과 쾌적한 환경이 가장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는 거주기간이 11~20년 사이인 경우와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숙경(2004)[14]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생활 만족도, 일상생활 영역, 가정의 경제사정, 질병 치료여부,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주수입원 등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이 폐광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과거만족도 변인에서는 쾌적한 환경이, 미래만족도는 주거환경, 쾌적한 환경, 교육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만족도에서는 기초생활여건, 주거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지역은 대부분이 사택생활을 하고 있어서 직장의 사직은 주거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주거지가 노후하여도 개인적인 개보수가 실제적으로 어렵다. 또한, 폐광이 진행되면서 빠른 시간에 주거지역의 노후와 공동화가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비워있는 낡은 주택들이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여진다. 박성복(2011)[15]의 연구에서도 주거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성일(2013)[16]은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종교가 가장 컸고 사회환경적 변인에서는 친구 및 이웃친지였고 사회적 지지, 여가참여, 사회활동 참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순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상이하

였다.

본 연구에서 10년 이상 탄광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에 현재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현재에도 탄광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과 쾌적한 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폐광지역의 노인들에게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주거지의 정비와 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동화된 지역을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S. G. Yoo, & B. H. Lee, "Methods of Activating the Mining Area Living Spac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Businesses"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Vol. 11, No. 14, pp. 1-2, 2011.
- [2] W. P. Hong, "Study on the residents movement in response to local decline: Case study of Taebaek." Seou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7.
- [3] K. S. Chae, "Solitary Senior Citizen's Social Support Status Study : In Taebaek City" Sa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4] M. S. Chang, & K. S. Park,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 232-266, 2012.
- [5] Neugarten B. L., Havighurst R. F., Tobin S.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pp. 134-143, 1961.  
DOI: <http://dx.doi.org/10.1093/geronj/16.2.134>
- [6] H. S. Oh, Impact of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Life-Satisfaction of the Elderly. Taegu University Dr's thesis, 2003.
- [7] D. S. Son, & H. J. Lee,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1, pp. 181-205, 2006.
- [8] N. R. Bae, & C. S. Park,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2, pp. 761-779, 2009.
- [9] Cohen, J.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2, No. 1, pp. 155-159, 1992.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12.1.155>
- [10] S. J.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Culture Institute*. Vol. 49, pp. 233-258, 1986.
- [11] G. S. Lim, "Recognition of Local Residents on Quality of Lif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 Focused on the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Kangwon University Dr's thesis, 2003.
- [12] H. A. Chang,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Urban Areas" *Social Welfare Review*. Vol. 1, No.1 pp. 33-51. 1996.
- [13] S. H. Oh, & D. S. Yoon,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mong urban, farm and island a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2, pp. 119-147, 2006.
- [14] S. G. Kim, "A study for Raising the Quality of the Rural Old Aged Men's Liv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3, pp. 179-202, 2004.
- [15] S. B. Park, "Residenti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3, No. 3, 2011.
- [16] S. I. Shin, & Y. H. Kim,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alated Variables of Elders' Quality of Lif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 3673-3690, 2013.

### 이 재 철(Jae-Cheol Lee)

[정회원]



- 1986년 2월 : 영남대학교 이학석사 (유기 및 생화학 전공)
- 1991년 2월 : 영남대학교 이학박사 (유기 및 생화학 전공)
- 1995년 3월 ~ 2006년 2월 : 삼척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2006년 4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화학, 식품영양

### 노 효 련(Hyo-Lyun Roh)

[정회원]



- 2001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이학석사)
- 2006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이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영동대학교 전임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아동치료, 교육, 직업병, 신경계치료